

## 서울건축사회,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전담

8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우남용)는 4층이하 2천제곱미터이하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를 전담키로 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우남용서울시건축사회장과 고 건설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협의된 것이며, 서울시 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용검사시 설계·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 불교와 유교문화의 옛 건축을 찾아서 ARCASIA Forum-10 Post Forum Tour

금번 ARCASIA Forum-10 Post Forum Tour는 '99건축문화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써 한국방문 외국인 건축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기행은 한국건축사를 전공하는 학자들 및 국내건축사와 자리를 같이 하며 현장에서 한국건축의 특성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것이다.

이번 기행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풍기 소수서원, 성리학을 대성시킨 퇴계선생을 모신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자연과 조화된 건축공간 구성으로 이름난 안동 병산서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고건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정자건축의 백미인 봉화 닭실마을 청암정, 대표적인 사대부 가거지인 하회마을과 내암 의성김씨 종택, 대표적인 재실건축 형식을 보여주는 안동 능동재사 등이다. ARCASIA Forum-10 참가자 및 배우자들의 많은 참여 기대한다.

- 시행일시: 1999년 9월 18일(토)~19일(일)
- 기행장소: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 능동재사, 내암 의성김씨 종택, 도산서원, 청암정, 소수서원, 부석사
- 출발시간: 9월 18일(토) 오전 7시 30분
- 숙소: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지례예술촌
- 참가비: 6만원(USD80)
- 문의처: 거래문화답사연합  
(02-708-4206)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02-762-8090~1)

## 건축계소식 archi-net

### 한국건축 100년전

8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건축100년전이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 제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시는 3부 11개 주제로 이루어지며, 개항시기에서 199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형 연표가 부착될 도입부를 시작으로, 1부는 개항 이후에서 한국전쟁 직후까지, 2부는 전쟁직후부터 현대까지, 3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사고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이번 행사의 행사위원장인 방철린(인토건축)씨를 포함한 20여명의 행사위원들이 작품리스트를 취합, 주제에 적합하고 역사적으로 주목받은 건축작품들을 선정해 전시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시회에 출품될 작품들은 스케치, 패널 및 모형, 액자, 입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된다. 전시회와 함께 개막리셉션, 심포지엄,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치뤄질 예정이다. 문의: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사무국(02-762-8090)

## 이종관 회원,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범죄예방, 자원봉사 공로로



지난 7월 5일 중앙일보와 법무부와 공동 주최한 「99범죄예방 유공 정부포상 및 자원봉사상」시상식에서 서울동부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해 온 공로로 이종관(한건종합건축)회원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됐다. 우리 협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이회원은 81년부터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일과 인연을 맺고 그동안 1백50여명의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매달한차례 이상 상담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비행청소년 20여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취업알선과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불우청소년 3백여명에게는 사재를 털어 장학금과 생계보조비 1억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불우이웃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 서 왔다. 또 87년부터는 서울송파지역 범죄예방자원봉사대를 구성,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의 범죄예방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범사회적 운동으로 자리잡는데 숨은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 김정철회원,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신입위원장 임명

부위원장에 이명호(중앙대 교수), 이영희(희림건축)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7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거쳐 김정철(정림건축)회원을 신입 조직위원장

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광노 전임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단행된 위원장의 교체와 더불어 부위원장 역시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인 이명호씨와 회림종합건축 대표 이영희씨로 교체됐다. 신임 위원장에 선정된 김정철씨는 현재 주. 정림건축의 대표이사과 회장으로 있고, 주요작품으로는 후암교회(1967), 서울대본관(1973), 청와대춘추관(1991), 예담교회(1994)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용산에 짓고 있는 중앙국립박물관 설계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다.

### 김석철회원, 98대리석 국제건축대전 특별상 수상

건물외관 분야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김석철(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회원이 이탈리아 해외무역공사와 대리석관련 기계협회인 IMM사가 공동주관한 98대리석건축대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건축대전은 건물외관,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등 3개 분야에서 작품을 공모했는데 김석철회원은 서울 예술의 전당을 출품하여 건물외관 분야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건축가들에게 석재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행사로 열리는 대리석건축대전은 매년말 공모해 이듬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 서울건축 김종성씨, 미국 FAIA로 추대

미국 건축계 최고의 영예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달라스에서 'Think Big, Make It Happen'이라는 주제로 열린 AIA 총회에서 김종성

(서울건축)씨가 FAIA로 추대되어 원로(College of Fellows)에 입회하였다. FAIA는 Fellow of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라는 의미로서 AIA 회원중에서 우수한 건축작품활동을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한 존경받는 건축가에게 부여되는 호칭으로 기존의 FAIA회원 5명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작품 및 공적심사를 거쳐 추대되는 미국 건축계 최고 영예의 자리이다. 지금까지 국내 4명의 건축가가 FAIA로 추대되었고, 2명의 건축가가 Honorary FAIA(미국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 수여)로 추대되었는데 김종성씨는 국내 처음으로 현재 활동 중인 건축가로서 정식으로 Fellowship FAIA(미국 국적을 가진 건축가에게 수여)로 추대된 것이다. 이번 심사대상작품으로는 역도경기장, 서울힐튼 호텔, 경주선재미술관, 아주대에너지연구센터, 아트선재센터 등이었다.

### 한양대, 통나무건축 교육생 모집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접수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수공예 통나무건축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오는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오는 9월 7일부터 1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5시 50분(저녁 7시부터 8시 50분)까지 실시된다. 문의: 02-2290-1521

### 국민대, 목조건축 설계교실 수강생 모집

8월 20일까지 접수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 제7기 목조건축설계 교실 수강생 30명을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2-2006-6212~3

### 대한목조건축기술인협회 창립

회장에 김낙중(중원건축)

목조건축인들의 연구모임인 대한목조건축기술인협회가 지난 7월 10일 창립되었다. 건축사와 각대학 건축과 교수 및 강사를 비롯한 목조건축 시공인 등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협회는 회원간의 교류 활성화, 목조건축의 자격증 제도 실시 및 목조주택 감독제도 실시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초대회장에 중원건축의 김낙중회원이 피선됐다.

### 서울건축학교, 9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추가모집

8월 28일까지 원서접수

서울건축학교는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추가로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4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국내외 학생들과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들이다.

• 원서교부: 1999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 원서접수: 1999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 심사: 1차-1999년 8월 30일(입학지 원서,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2차-1999년 8월 31일(면접)
- 합격자발표: 1999년 9월 1일
- 등록기간: 1999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 문의: 서울건축학교 사무국(02-763-0471)

## 제1회 건축사진 강좌

청암건축사진수튜디오에서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청암건축사진 스튜디오(대표 임정의)에서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무과정 건축사진 강좌를 개최한다. 주1회씩 12주에 걸쳐 건축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이론과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건축사진의 폭넓은 이해와 활용을 목적으로 10명내외의 인원을 모집한다. 소형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야외촬영, 인테리어촬영, 암실작업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인작업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매주화요일 오후6시이며, 참가신청은 8월 20일까지다. 문의: 청암건축사진 스튜디오(02-567-2700)

## 월간 건축인 POAR, 제2회 NG포럼

「1999년 7월의 베를린현장건축 리포트」를 주제로

월간 건축인 POAR에서 주최하고 건축발전연구소에서 주관하는 'Negative

Thinking Forum'이 8월의 게스트로 삼우설계 박민철실장을 초대, 1999년 7월의 베를린현장건축 리포트를 주제로 8월 21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월간 건축인 POAR 사무실에서 열린다. 참가비: 15,000원, 선착순 20명, 당일 석식 및 음료제공, NG저널 1회 구독권 제공  
문의: 건축발전연구소 02-2637-3890

## 제4회 목조건축학교 개최

실습 목조주택 한우림쉼터에 기증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지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대전시 동구 한우림쉼터에서 제4회 목조건축학교를 개최했다. 2×4목구조건축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인 이 행사에는 현직 대학강사, 건축가, 건축전공 대학원생 등 37명이 참가하여 숙식을 같이하며 이론 강의와 실습, 그에 대한 토론 등의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이번 목조건축학교에서 실습과제로 건축한 다락방을 포함한 40평규모의 지상 2층 목조주택을 지난해와 같이 택지를 제공한 장애인복지재단인 한우림쉼터에 기증하였다.

## 「공동주택 공사감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30일, 우리협회 대강당에서

한국건축도시법제학회(회장 최찬환)에서는 지난 7월 30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우리협회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공사감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건

설물량의 격감, 시장개방과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잇단 규제완화조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논란,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등의 건설재해와 불법, 부조리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것과 아울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등에 따른 감리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과 관련해 공동주택 공사감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최찬환(한국건축도시법제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교수)씨를 좌장으로 발표자는 김기철(동명건축), 김상식(부림건축),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씨가, 토론자로는 김영섭(건축문화), 김천주(주부클럽연합회), 이소원(삼성물산 주택개발부), 이종정(호암건축), 장철수(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장안종합건설), 조계환(로아건축), 최주호(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씨 등이 참석했다.

## 재독 건축가 이은영, 독일 주립중앙도서관 설계공모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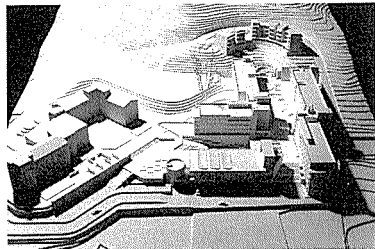
유리블록의 정육면체 건물

재독 건축가 이은영씨는 지난 7월 15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신축중앙도서관 현상설계에서 유럽 각국에서 몰려든 235편의 경쟁작을 물리치고 1등으로 당선했다. 이번 당선은 이은영씨가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84년 독일로 건너간 뒤 15년만의 결실로 상금 8만5천 마르크(약5천2백만원)를 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아켄공대에서 디플롬을 딴 뒤 독일현대건축의 거장 O.M. 옹거스의 설계사무소와 J.쉬어만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쌓고, 94년 뮌헨에 자신의 이름으로 설계사무소를 열었다. 당선안의 내용은 중앙역사 구역의 문화적 중심건물이 될 중앙도서관으로 그는 주변 상업건축의 현란함과 구별되는 차분하고 단순한 건

축을 구상하였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0미터에 달하는 유리블록의 정육면체 건물속에 입방체의 중심공간이 복층아트리움처럼 들어있는 형태다. 도서관의 대열람실은 갤러리식으로 상층부를 향해 점점 확대되어가는 공간형태를 취했다. 도심의 오아시스와 같은 도시계획적 연출, 강인한 이미지의 단순한 형태는 아주 인상적이다. 인공호수에 정방형의 형태로 들어설 이 21세기 도서관은 2001년 착공해 2003년에 완공예정이다.

## 전주대 제2기숙사 설계경기 작품전시

9월 30일까지 대학본부 로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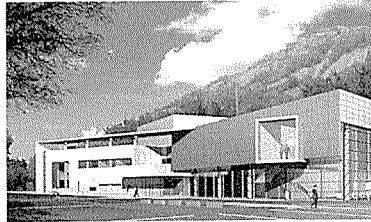


당선안

전주대학교에서는 제2기숙사 신축에 따른 설계경기를 실시한 후 작품전시회를 갖는다. 지난 7월 15일 총 18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경합을 벌인 이 설계경기는 특히 마지막까지 2등안과 당선안을 두고 심사위원들의 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에서 몇몇했다는 것이 주최측과 심사위원, 참가자 대다수의 심사후담이다. 이번 설계경기의 당선안은 우림A&C건축(권연하)안, 2등안은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두하건축(김기택)안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6일 발표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경수(명지대), 김광현(서울대), 최윤경(중앙대), 박광규(광주대), 이관석(한남대), 진정(전북대), 정재현(전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학본부 로비(2~4층)에서 전시된다.

## 현상설계,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

당선, 금성건축+김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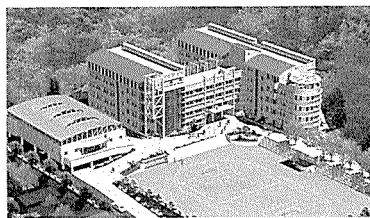


당선안

목포시청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시행하여 건축, 전시업체간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설계경기는 총 5개 작품이 참여, 금성건축+김현철(건축)+금강기획+시공테크(전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7월 15일 발표했다. 갯바위 근린공원 내 문화의 거리에 위치하게 될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은 기존 대지내에 위치한 향토문화관과 연계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해양유물전시관, 남농기념관, 목포문화회관 등 기존 문화시설과 함께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와 관광종합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는 서해안권 관광과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상설계, 와동중학교

당선, 윤건축(윤덕찬)



당선안

안산교육청에서 실시한 와동중학교 신축

을 위한 설계경기에서 윤건축(윤덕찬)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총 10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에서 우수작으로는 시공건축(우시용)안이 선정됐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윤건축안은 지형의 고저차가 심하다는 현 부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경사면과 향을 고려하였으며, 입면도 전체의 주요외부 마감재인 치장벽돌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진입부를 커튼월로 처리함으로써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심사는 문석창(대림대), 김정태(경희대), 윤동원(경원대), 김용승(한양대), 변태호(성균관대), 김대익(한경대)교수와 이종섭(안산교육청), 현순학(경기도교육청), 한상국(경기도교육위원회)씨가 맡았다.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지어질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와동중학교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1월경 착공될 예정이다.

## 현상설계, 월곶중학교

당선, 원형건축(손광민, 최대성, 광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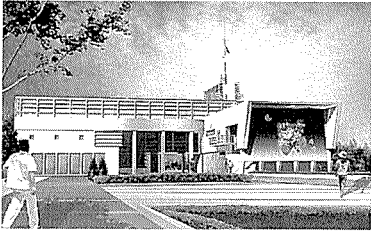


당선안

안산교육청이 와동중학교와 함께 월곶중학교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8개 작품이 참가한 가운데 원형건축(손광민, 최대성, 광희수)안을 당선작으로, 오채건축(김원배)안을 우수작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안산시청은 설계지침으로 중학교 신교육과정에 대응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설계에 미적, 기능적, 경제적인 현대적인 학교를 제시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지구에 지어질 월곶중학교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될 예정이다.

## 현상설계,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당선, 도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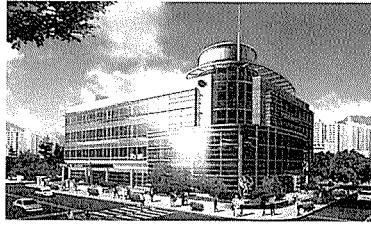
당선안

전주시는 완산구 중노송동에 자리할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도연건축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층에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사랑방, 오락실, 음악감상실과 같은 체험공간이, 2층에는 3D스튜디오, 가상현실스튜디오 등과 같은 최첨단 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3층에는 벤처사업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 2층에 설치될 각종 시설들은 회사별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선작인 도연건축안은 외부에 스크린월을 설치하여 전시홍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외부 관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 현상설계, 제천우체국

당선, 엄이건축(이각표)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는 제천우체국 개축설계와 관련해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엄이건축(이각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엄이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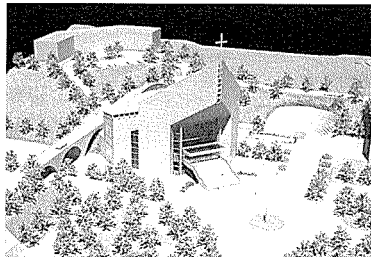


당선안

안은 계획부지가 도로모퉁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전면도로에서 건물이 잘 보이도록 모퉁이 부분에 부지형태와 맞추어 T자형태로 건물을 배치하였고, 수평면 위주로 입면을 처리하는 동시에 형태의 변화와 시각의 초점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서리부분에는 원통형을 강조하여 계획하였다. 제천우체국은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 건축면적 1,189.40㎡, 연면적 4,736.3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 현상설계, 총신대100주년 기념교회당

당선, 정주건축(정시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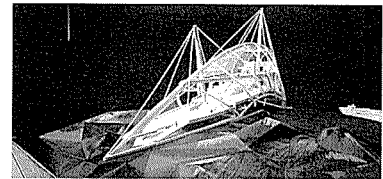
당선안

3개팀을 선정하여 지명설계경기 방식으로 치러진 총신대 100주년기념교회당 현상설계경기에서 정주건축연구소(정시춘)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정림건축과 하나그룹건축이 함께 참여한 이번 설계경기는 기념성과 상징성을 표현할 것, 건물과의 연계 및 조화를 고려하여 진입, 주차장, 부대시설, 옥외공간 등을 총괄시켜 배치할 것, 경사지형을 고려한 단면 및 구조 계획으로 과도한 법면 노출이나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각 시설의 성격에 따른 조닝

및 효율적 연계가 가능한 배치를 할 것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됐다. 대지면적 약3천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질 100주년기념교회당은 내년초 착공되어 2001년경 완공될 예정이다.

## 제2회 강구조건축물 설계공모전

최우수상에 '아쿠아파빌리온'  
(이은령, 이택준, 박광수)



최우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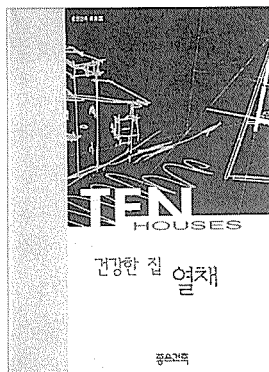
한국철강협회는 환경친화적 소재인 철강재를 사용한 강구조물의 건설을 유도하고, 공모전을 통해 강구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강구조건축물 설계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강구조를 이용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지역특정 생활문화시설 계획을 주제로 전문대이상 건축관련학과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이내의 공동작품을 대상으로 했다. 총50팀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홍익대의 이은령, 이택준, 박광수의 '아쿠아파빌리온'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우수상 3점에는 인하대건축대학원의 박정란, 박주혜, 강석윤의 「지형과 건축물의 상호조화」, 아주대의 정동훈과 아주대학원의 최영철의 「도시의 영상」, 한동대의 김도형, 김수보, 김태영의 「시간의 흐름」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외에 장려상 6점과 입선 20점이 각각 선정되었다. 심사는 계획 및 설계분야에 이특구(서울시립대), 박영기(연세대), 김진균(서울대), 동정근(인하대)교수와 김창수(삼우설계), 박영건(범건축), 장응재(원도시건축)소장이, 구조분야에는 김규석(동국대), 김상대(고려대), 김종락(송실대)교수 등이 참

여했으며, 김광일(강원산업), 장성수(동국제강), 한민수(인천제철), 신성수(포항제철), 이준기(한국철강협회)씨 등 협찬사와 주최측에서 참여했다. 시상식은 지난 7월 12일에 있었으며,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포스코센터 다목적홀에서 입상작들에 대한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 건축신간안내

건강한 집 열 채  
근대건축기행  
얹과 삶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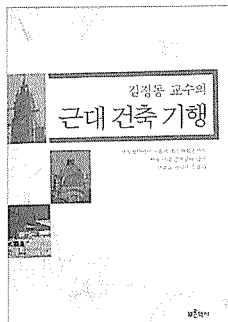
### ◇ 건강한 집 열 채



이 책은 단독주택만이 가지는 특수해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주택이 왜 '삶의 그릇'이고 '살기 위한 기계'이며 건축의 영원한 명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소개되던 것과는 달리 주거에 대한 건축가의 가치관, 도시 읽기, 주어진 대지읽기 등의 문화적 경관에 대한 이해와,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 그것을 재해석한 내용, 개념도출에서부터 전개, 실현까지의 전과정 및 문제점, 자재선정, 건축주와의 만남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스케치, 디테일 등의 도면과 풍성한 사진, 글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게재건축가와 작품: 김흥수(자명당), 우경국(몽학재), 서혜림(동빙고동주택), 정진국(열린 집 하나), 이현재(서보 파운데이션), 조병수(평창동 일자 스튜디오주택), 김병윤(몽죽헌), 김 현(세렌디피티), 임재웅

(일산주택 I), 배병길(청담을 위한 집)  
5×7배판/284쪽/3만2천원/도서출판  
좋은건축(02-2237-0252)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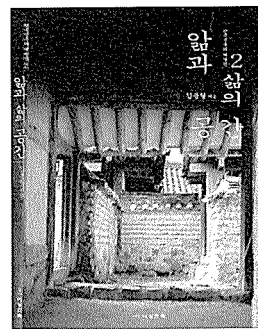
### ◇ 근대건축기행



목원대학교 김정동교수가 한국근대건축에 관한 책을 냈다. 지금까지 한국의 근대건축은 다른 부분보다 도외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자 김정동교수의 한국건축 중 근대건축을 다루었다는 점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근대건축에 담긴 아름다움이라는 단원은 우리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김중업의 작품 제주대본관, 부산대 본관, 유엔묘지 조형물과 함께, 절두산복자기념관, 강경북육교회, 성공회서울대성당, 그리고 아시아 근대건축을 두루두루 살펴봄여 근현대건축의 다양하고 값진 아름다움을 짚어보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건축 취향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시아 건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0여년간 건축역사를 정리해오며 틈틈이 여러 매체에 글을 써온 저자는 건축의 대중화, 즉 많은 사람들에게 건축을 읽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반대중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근대 건축사를 정리하였다. 또한 사회 속에 밀착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건축을 아쉬워하며, 이제 전문가의 손이 아닌 실제 수많은 건축물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책을 내놓게 되었다.

김정동지음/264쪽/9천원/도서출판 푸른역사(02-364-7817)발행

### ◇ 얹과 삶의 공간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중 1권인 「시대를 담는 그릇」에서 건축의 역사읽기를 시도하였다면, 2권인 「얹과 삶의 공간」은 한국건축의 다양한 전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개인주택에서부터 마을까지, 석굴사원에서 정원까지, 1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국건축의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정신과 다양한 기능들을 다루고 있다. 이 다양한 얹과 삶의 건축들을 통해 한국건축의 풍부한 변용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전통에 대한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지만 대부분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어려워서 전공자 이외는 읽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는 건축인뿐만 아니라 문화인,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씌어졌다. 특히 각각의 건축물 별로 테마를 먼저 선정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전통건축의 전체 맥락과 구성,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으로 일맥 상통하게 집필되어졌다.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혼재되어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답사지에 대한 자세한 해석 그리고 주변 문화유산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2권 「얹과 삶의 공간」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건축을 총집대성한 것으로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을 표현하고 있다.

김봉렬지음/335쪽/1만8천원/월간 이상건축(02-549-5383)발행